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04 친구가 되어 주시는 왕
The Faithfulness of a Friend

구약04 | Old Testament 04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창조의 하나님
God the Creator”

01 창조
Creation

04

04 친구가 되어 주시는 왕 | The Faithfulness of a Friend

(요나단, 신실한 친구여!)

요약 | Summary

이 과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우정의 사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단은 친구의 안녕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믿음으로 그의 힘을 북돋워 줌으로써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에게 가장 참되고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정의 의미를 재정의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새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참된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In this session, we take a look at one of the greatest examples of friendship in the Bible—David and Jonathan. Jonathan shows us what it means to be a true friend by being utterly committed to David's well being, by risking his own welfare for the sake of David, and by strengthening him in faith. The example of Jonathan points forward to the truest and best friend of all—Jesus Christ Himself, who redefines friendship and transforms us into the kind of people who can be true friends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성경 | Scripture

사무엘상 18장 1~3절: 19장 1~7절: 23장 15~18절
1 Samuel 18:1-3; 19:1-7; 23:15-18

포인트 | The Point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건한 우정이 필요하다.
God's people need godly friendships.

등장인물 | Characters

☐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The Triu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 다윗(이새의 막내아들. 사울에 이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받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의 소유자. 골리앗을 물리침)

David - youngest son of Jesse who was anointed to be king following Saul. David is recognized for a number of things, in terms of both his character—he followed God—and his accomplishments—he defeated Goliath, etc.

☑ 요나단(사울의 아들, 다윗의 절친한 친구.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 다윗의 왕권을 인정함)
Jonathan - son to Saul and close friend to David. Even at great cost to himself, Jonathan supported David's rightful claim to the throne

메세지 좌표 | Plot

사울 왕을 이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야기 사이에 믿기 힘든 놀라운 우정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의 참된 특성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우정을 엿보게 해 줍니다.

In between the unfolding story of Saul and David's reigns as kings over Israel lies an incredible story of a surprising friendship-, one that teaches us not only about true characteristics of a genuine

friend, but also a glimpse into the type of friendship we have been granted access to through the gospel.

Intro

5-10분 | 5-10 minutes

A.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면 (오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이 지나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5,000명 두고 있다고 해도 그들 중 절반 이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 역시 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주변에 사람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늘 마주치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가 놀랄 만큼 피상적입니다. 이로 인한 우정에 관한 개념의 혼돈은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모든 관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피상적으로 머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친구와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까?

→ 앞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깊은 우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riendship is a strange thing nowadays. Just 20 years ago, it would have been seen as the height of exaggeration (not to mention arrogance) for a person to claim hundreds or thousands of “friends.” But today, this is true of almost anyone with a Facebook account.

We have more friends than ever, don't we? Well, not really. What kind of “friends” are these? A person may have 4,500 Facebook friends, but that person probably doesn't really know even half of them, or the other way around.

The problem in our day is not that we lack people around us. We cross paths with people all the time. No, our problem is that we lack true friends. We are overly connected, but those connections are incredibly shallow. Our notion of friendship has shifted to the point that it affects even the few friends we do have, leading to us to settle for shallow relationships everywhere.

→ ***When you were growing up, who would you say was your closest friend? What made your friendship so close?***

→ ***As you look toward the future, what kinds of friends do you want to have in your life? How can you work to create deeper friendships?***

B.

페이스북 '친구' 수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을 던지십시오. 페이스북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단, 딱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알고만 지내는 사이' 등의 등급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오프라인 친구들은 어떤 등급에 들어가나요?

이 활동의 목적은 여러 차원의 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더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요소를 삶에서 경건한 관계를 키워 가기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조언해 주십시오.

For this option, engage them in discussing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they have. Ask questions like the following: “If you were required to name only one person as your Facebook best friend, could you do it? What if there were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close friends,’ ‘good friends,’ or ‘not really friends, but I know them.’ How many of your original friends would be in each of those categories?”

The purpose of this exercise is to encourage them to understand the different levels of friendship with the intention of helping them discover some of the elements that lead to deeper friendships with other people. Wrap up by saying that in today’s session, they are going to discover what some of those elements are, providing an example to cultivate godly relationships in their own lives.

이 회색 세로줄이 있는 단락은 일반 교재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Every time you see this bar in this booklet, it indicates the same material is also found in the personal study guide as well.

HIS STORY

20-30분 | 20-30 minutes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야기
God's story of Redemp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01. 왕관보다 친구가 더 소중해 | JONATHAN WAS COMMITTED TO DAVID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인 골리앗과 싸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작은 돌맹이 하나로 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다윗은 약자가 승리하는 이야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다윗이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자 사울의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를 가까이하되 적은 더 가까이하라." 사울은 다윗을 왕궁에 두기로 했고, 다윗은 '왕궁 연금' 상태에서 요나단과 만났습니다. 당시 왕실의 가계를 조금만 알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서열 1위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선포하며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 관계가 아닌가요? 하지만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정도의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삼상 18:1~3).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자신보다 자녀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나고 처음 몇 년간은 사심 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부어 줍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을 계속 쏟아 붓습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의 자세인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할게' 식의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형제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는 훗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성취한 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 22:39).

→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정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 친구를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We saw in the previous session how David was anointed by Samuel and how he stood up to the greatest warrior in the land—Goliath. David brought the giant down with a single flick of the wrist, and with one little stone, David became the prime example of underdog victories for centuries to come.

After David's victory, he grew in popularity. He was celebrated as a national hero, so much so that Saul—the reigning king—began to worry. Saul saw David as a threat to his throne. Saul might have been paranoid, but he wasn't dumb. Perhaps he knew the old proverb: keep your friends close and your enemies closer. So Saul decided to place David where he could keep an eye on him, in the king's palace itself. While David was under “palace arrest,” he met Saul's oldest son, Jonathan.

As soon as he had finished speaking to Saul,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and Jonathan loved him as his own soul. And Saul took him that day and would not let him return to his father's house. Then Jonathan made a covenant with David, because he loved him as his own soul. (1 Sam. 18:1-3)

It doesn't take much knowledge of royal lineage to figure out that this friendship wasn't an obvious one. As Saul's oldest son, Jonathan was the king-to-be. Even though Jonathan was next in line, David was the one who had been anointed, the man whom God declared as the next king.

Shouldn't David and Jonathan be rivals then? Shouldn't Jonathan see David as a threat? In most cases, yes. But in this story, David and Jonathan become fast friends—with a covenant commitment based in Jonathan's loving David as much as he loved himself.

Consider the commitment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A mother commits to love and care for her child and to put her child's needs above her own, no matter what happens. Especially during the first few years, the child is unable to reciprocate any love that would even come close to the selfless and sacrificial love of the mother. Yet a mother continues the downpour of love for the child.

That kind of unrelenting, “I’m always going to be here for you” love we see modelled by a good parent is the kind of commitment we see here between Jonathan and David. Like siblings who stick together no matter what comes, Jonathan and David are committed to each other’s good. Jonathan loved David like he loved himself—a fulfilment of what Jesus would later command: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Matt. 22:39).

- ***In your world, the word commitment probably doesn’t paint the same picture as the covenant bond we see between David and Jonathan. How can you create this kind of commitment, or covenant, in your friendships? (p. 28, PSG)***
- ***What does it mean to love someone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How would your relationships look different if you lived this way? (p. 28, PSG)***

02. 언제나 네 곁에 있어 | JONATHAN PUT DAVID BEFORE HIMSELF

언약이란 아름다운 형태의 헌신이지만,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요나단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가진 것의 거의 전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조차 요나단은 우정의 언약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다윗이 역경에 처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어도, 사방이 불리해도 요나단은 거기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삼상 19:1~7).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자기 평판이나 안위나 안녕을 기꺼이 감수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를 갖는 것과 그런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Covenants are a beautiful form of commitment, but they always come at a cost. Jonathan's covenant with David, by human standards, cost him almost everything. That's what sacrifice means—giving up something and committing to something greater. And this is where we see Jonathan risking his own welfare for the sake of his friend.

And Saul spoke to Jonathan his son and to all his servants, that they should kill David. But Jonathan, Saul's son, delighted much in David. And Jonathan told David, "Saul my father seeks to kill you. Therefore be on your guard in the morning. Stay in a secret place and hide yourself. And I will go out and stand beside my father in the field where you are, and I will speak to my father about you. And if I learn anything I will tell you." And Jonathan spoke well of David to Saul his father and said to him, "Let not the king sin against his servant David, because he has not sinned against you, and because his deeds have brought good to you. For he took his life in his hand and he struck down the Philistine, and the Lord worked a great salvation for all Israel. You saw it, and rejoiced. Why then will you sin against innocent blood by killing David without cause?" And Saul listened to the voice of Jonathan. Saul swore, "As the Lord lives, he shall not be put to death." And Jonathan called David, and Jonathan reported to him all these things. And Jonathan brought David to Saul, and he was in his presence as before. (1 Sam. 19:1-7)

Jonathan had nothing to gain in his relationship with David, but had everything to lose. He lived out his covenant friendship even when things got difficult. When adversity struck David, Jonathan was there. When death seemed certain, Jonathan was there. When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David, Jonathan was there.

God knows we need friends who are willing to risk their own reputations, their own comfort, or their own welfare for our sake. It's one thing to *have* such friends; it's another thing to *be* that kind of friend.

03. 친구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잖아 | JONATHAN REMINDED DAVID OF GOD'S PROMISES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 동굴에서 동굴로 옮겨 다니며 떠돌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섭게 추적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저자는 이때 요나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주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심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삼상 23:15~18).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의 손을 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힘 있게 할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적극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다면 적극적인 것도 무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의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힘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렸지만, 그조차 자신을 격려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을 주는 친구들은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더 큰 약속, 즉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해 왔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As we fast-forward in the story of David, we find him on the run from King Saul. David flees into the desert and moves from cave to cave, running for his life. The friendship of David and Jonathan takes a backseat to Saul's high-speed chase after David. But every now and then, the author lets us know what Jonathan was up to. And as it turns out, Jonathan was doing whatever he could to strengthen David's hand and put him in the best position to survive.

David saw that Saul had come out to seek his life. David was in the wilderness of Ziph at Horesh. And Jonathan, Saul's son, rose and went to David at Horesh, and strengthened his hand in God. And he said to him, "Do not fear, for the hand of Saul my father shall not find you. You shall be king over Israel, and I shall be next to you. Saul my father also knows this." And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 before the Lord. David remained at Horesh, and Jonathan went home. (1 Sam. 23:15-18)

In this passage, we read that Jonathan made sure to meet with David and "encourage him in his faith" or "strengthen his hand." In other words, Jonathan was intentionally seeking ways to strengthen David.

Intentionality, of course, isn't everything. In fact, intentionality is pointless if it doesn't have a purpose. After all, your destination in life isn't determined by your *intentions* as much as it is by your *direction*.

This is also true of friendship. The people who point you to God and strengthen you to do His will—those are the ones we need. David would be called a man “after God’s own heart,” yet even he needed someone to encourage him.

Friends who strengthen and encourage our faith in God don’t do so by minimizing the problems in our lives. When Jonathan showed up, David was still on the run. Saul still wanted him dead. The fear was still real. But Jonathan provided hope in the midst of the fear. He pointed to a greater promise—God’s promise that David would be the king. And just as David had hoped in God in days gone by, he could continue to hope in His promised future. Jonathan didn’t present himself as the answer to David’s problems. He presented God’s promises as the answer.

본문으로 더 깊이 | **Going Further with the story**

다윗은 집을 떠나 두려움에 떨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를 위해 나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요나단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약 48km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살펴보기 위해 걸 치고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들이 모두 멀어질 때 다가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Here we see David alone and afraid, far from home. But when Jonathan heard about it, he acted. Historians tell us that the distance Jonathan trekked was about 30 miles. That’s an incredibly long walk to check on a friend. But Jonathan knew that a true friend is one who walks in when everyone else walks out. So he walked

그리스도와 연결 | Christ Connection

가장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선보인 참된 우정의 면면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실 텐데,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건너오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궁에 다윗을 들여보내기 위해 자기 왕좌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우리 죄와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쓴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The story of Jonathan points forward to Jesus. Jonathan may be a wonderful example of friendship, but he is only a shadow of our truest Friend. Jesus would fulfill everything that Jonathan hinted at. Like Jonathan, He would serve us at great personal cost to Himself. Like Jonathan, He would come to us in our need—but instead of walking 30 miles, He crossed the gap between heaven and earth. Jonathan gave up his right to the palace to help David get in; Jesus purchased our place in the palace at the cost of His own blood. He made His cause ours, taking our sins and our sorrows and swallowing death in our place so that we could have life eternal. Here is the friend we've always searched for—the only one who risked it all, who always strengthens our hand in God, who commits Himself eternally to our good.

알짜 교리 99: 교회의 덕을 세움 | 99 Essential Doctrines: Edification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방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상호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고전 12:26; 갈6:2). 또한 교회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엡 4:11)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Edification refers to the progressive growth and maturity of the church,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 Bible talks about different ways maturity, or edification, may happen, such as through the fellowship Christians share with one another (1 Cor. 12:26; Gal. 6:2). In addition, edification takes place through the church's preaching and teaching of Scripture (Eph. 4:11), helping people understand and internalize the whole counsel of God. In the end, edification is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equipping people to live on mission for the kingdom of God.

YOUR STORY

10-15분 | 10-15 minutes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는 곳 | *Where your story meets His.*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친구가 당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적이 있습니까? 그 친구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헌신이 어떠한지를 보여 줍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심 없이 한결같은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복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정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우정의 본모습을 어떻게 제공합니까?
복음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누군가를 보여 줌으로써 우정에 관한 가장 선명한 묘사를 전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 이 과의 내용은 우정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 ***When has someone risked something for your sake? What did their actions communicate about their commitment to you?***
Answers to this will vary.
- ***When have you shown intentional and consistent kindness to someone, like Jonathan to David?***
Answers to this will vary.
- ***The gospel is the greatest act of friendship in history. How does the gospel provide the best model for true friendship?***
The gospel gives us the clearest picture of friendship by showing us what it is like for someone to lay his life down for a friend. Because Christ befriended us, we should be willing to befriend others in the same manner.
- ***How has this story affected your view of friendship? What are some ways you intend to become a better friend to those around you?***
Answers to this will vary.

YOUR MISSION

10-15분 | 10-15 minutes

생각 | Head

요즘에는 언약을 많이 맺지 않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계약은 제한적이고, 늘 자신이 최우선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무언가를 취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 **이기적인 친구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사심 없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기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우선하겠다는 헌신이 넘쳐나는 경우입니다.

We don't have many covenants these days. The closest we have are contracts, but there's a world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tracts are limited. The "I" is always foremost with a contract. But when we see our closest relationships in terms of a contract—with the "I" first and foremost—it's a disaster. We start assessing people based on whether they meet our needs. If they don't, we toss them aside for someone or something else. But covenants are different. Covenants start with the needs of the other person. They start with loving someone as you love yourself.

- ***What are the ways you can tell that someone is being a friend to you only for what they can receive?***
Answers to this will vary.
- ***How can you tell that someone genuinely and selflessly cares about you?***
Selflessness is best displayed through one's actions, being an overflow of his or her commitment to putting others first in life.

마음 | Heart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보고 떠나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비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였던 마음 문을 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훨씬 더 중요한 분에게 드러나 버렸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차 속마음을 감추려고 한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 거의 말하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장하고 있는 모습을 믿게 하려고 배우처럼 구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친구들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솔직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실제로 그들과 통하는 길입니다. 강점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약점을 통해서만 사람들과 통할 수 있습니다.

Many of us are afraid to open ourselves up to others for fear that they may see our personal flaws and imperfections and walk away. However, if we remember that Jesus said to us,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John 15:16), we can have the confidence that Jesus doesn't call us "friends" because we were the popular ones, the smart ones, or the righteous ones. He calls us friends because

of His mercy. Period. This assurance gives us the ability to be vulnerable. We aren't afraid to open ourselves up to people, as if their judgment is going to destroy us. We've already been exposed to someone far more important, and He responded by declaring us His own.

- ***What are some ways we try to fake true authenticity with even those closest to us?***
We expose very little about the things going on in our hearts, we play the actor in having people believe we are something we are really not, etc.
- ***Why is it necessary to be transparent with our friends in order to have a genuine connection with them?***
Being honest about our weaknesses with others is the path to really connecting with them. You can impress people with your strengths, but you can only connect with people through your weaknesses.

행동 | Hands

세상에는 '소극적인 친구'가 가득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맹비난해도,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극적인 친구가 원수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쏟았으며, 자기 행복까지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친구 다윗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 소극적인 우정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어떻게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친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격려하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확신시키기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The world is filled with “passive friends.” You call them, and they don't call you back. When someone trashes you in public, they don't step up to defend you. Sometimes, the passivity of a friend can hurt more than something said by someone who's your enemy. At least with an enemy you're expecting trouble. But with a passive friend, you end up under the bus time and time again. However, Jonathan was not a passive friend. He took time, spent energy, and risked his own welfare—all to make sure his friend David was strong.

- ***What are some examples of passive friendship?***
Answers to this will vary.
- ***How can we be more intentional in strengthening a friend's faith in God?***
Answers may include things like: praying with and for them, encouraging them with a promise from God's word, assuring them of God's love and purpose for their life, etc.